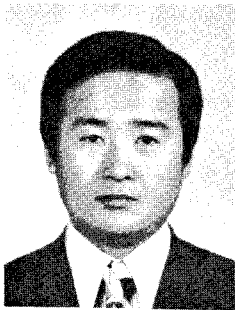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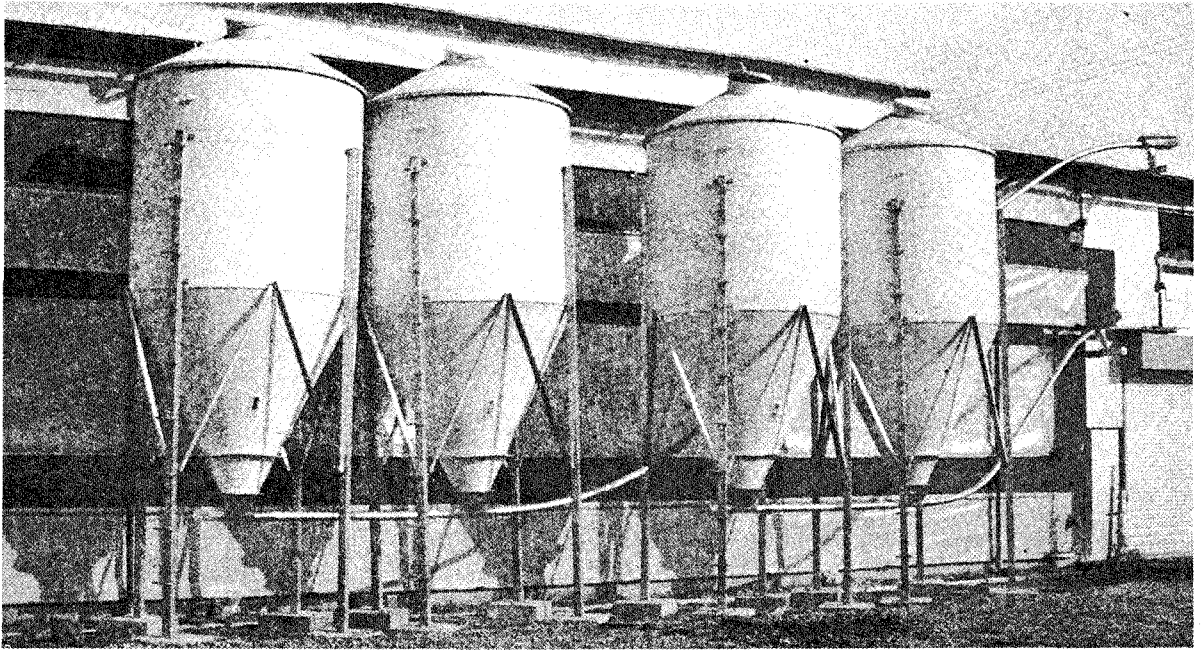


# 미국산 대두 수급 불안과 국제 옥수수가격 강세



김 동 수  
옥성씨비스 상사 대표

## (88/89 미국 대두재고 전년대 비 90% 대폭 감소예상)

- 미농무성은 88/89(10월-익년9월)년의 미국산 대두의 생산과 수요 기말재고 수량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말재고량이 87/88년 기말재고 2억 7,500만bu(약 750만 톤)보다 88/89 대두의 기말재고는 1억 3,000만bu(약 350만톤)이 대폭 감소한 1억4,500만bu(약 395만톤)로 발표하였다.

- 이러한 대두의 대폭적 감소예상은 86/87 기말재고 4억3,600만bu에서 87/88 기말재고가 2억7,500만

bu로 계속 대두의 재고가 감소되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86/87 기말재고 대비 87/88 기말재고가 무려 1억6,100만bu이 감소한 사실은 그동안 저곡가 시대의 재고누증에 의한 재정압박에 대한 미국정부의 강력한 감산정책 등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조짐은 87/88년초부터 예상되어 기히 국제 대두 및 대두박 가격의 앙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미국산 대두의 대폭적 재고감소는 국제 대두 및 대두박 거래에 가격앙등을 예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전반적인 식물성 단백질 원료는 물론 동물성 단백질, 원료가격에까지 파급될 조짐이 농후하다. 문제는 얼마만큼 가격이 인상되고 지속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판단키 지난할 뿐이다.

\*주 : 대두 36,7437BU=1METRIC TON

표 1) 미산 대두 수급 예상

단위 : 100만 bushel

구 분	87/88.5.10	88/89.5.10	대 비
기초재고	436	275	
생 산	1,905	1,880	
공급소계	2,341	2,155	△ 186
제 유 용	1,170	1,155	
수 출	800	760	
종 자 외	56	36	
수요소계	2,066	2,010	△ 56
기말재고	275	145	△ 130

(미산 옥수수재고 88/89년에 20% 감소예상)

- 상기 대두 및 대두박 가격의 강세는 사료원료의 주종을 이루는 옥수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역시, 미농무성 발표 88/89 미국산 옥수수의 수급상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말재고가 87/88 보다 88/89 곡물년도에 21% 감소한 7억2,300만bu(약 1,800만톤)이 줄어들 것으로 발표되었는 바 이는 곡물 TRADER들이 예상한

표 2) 미산 옥수수 수급 예상

단위 : 100만 bushel

구 분	87/88.5.10	88/89.5.10	대 비
기초재고	4,882	4,112	
생 산	7,064	7,300	
수 입	2	1	
공급소계	11,948	11,414	△ 534
사 료 용	4,900	5,000	
종 자 외	1,236	1,275	
(내수용)	(6,136)	(6,275)	
수 출	1,700	1,750	
수 요 계	7,836	8,025	+ 189
기말재고	4,112	3,389	△ 723



34억~35억bu을 하회하는 수치로써 향후 신곡 거래시 강세를 예상하는 주요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 : 옥수수 39,3679BU=1METRIC TON

- 87년 옥수수 시세는 재고누중에 따라 최저시세를 기록하였으나 '88년 이후 미국산 옥수수의 월별 시세동향을 요인별로 분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향후 옥수수 및 대두, 대두박의 국제시세는 강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관계가 당분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나, 한국의 사료 및 축산업계는 88년초부터 원화절상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있는

## 사료곡물 시세동향

'88월별	월별주요요인	'88시세 (C&F/MT)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8 1/4분기 이후 옥수수 주요 수입국의 구매계획 미정</li> <li>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로 등락요인 대립</li> <li>선임강세, 미국 감산 정책 강행</li> </ul>	100~105\$대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련 미산 옥수수 구매 종료 허위 발표</li> <li>미산 대두박 강세</li> <li>주요국의 옥수수 구매 입찰 지속</li> <li>미농무성 소련 곡물 수입증가예상 발표</li> </ul>	110~115\$대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련 미산 옥수수 구매재개</li> <li>선임 강세</li> <li>아르헨티나 옥수수 신곡거래 예상</li> </ul>	115~118\$대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국 옥수수 구매 템포 예년보다 빠름</li> <li>아르헨티나 옥수수 수출여력</li> <li>U.S콘벨트 지역 강우 양호</li> </ul>	114~117\$
5월상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 하락 M/T당 4~5\$</li> <li>수출수요 정체</li> </ul>	113~115\$
5월 하순 이후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두제고 감소예상 대두박 가격 상승→옥수수 가격에 영향</li> <li>선임 회복 기미</li> </ul>	120\$↑ ?

것은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원화절상 속도는('88년간 원화절상 20%대) 국제 곡물시세의 연20%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어 원화절상이 국내 축산업계에 기여한(?) 바 크다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 곡물시세의 인상폭이 원화절상 폭보다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세의 추가인하(사료곡물 5%→2~3%)와 기타 부원료의 관세율이 일정치 않아(7%~10%) 등 부원료에 대한 관세율의 인하는 물론 전사료원료에 대한 동일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상대적 양질, 염가가 원활히 구매될 수 있도록 관세 제도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너무나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변해가는 주위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 만.

한국의 40대 분들은 아마 기억에도 생생하리라... 6·25 이후 미국 원조 물자에 의한 분유가 배급되던 때에 물에 분유를 타 먹다 설사나서 고생한 어린시절 설사나지 않기 위해 분유에 물을 반죽해서 밥할 때 찌먹던 기억. 시간이 흐르면 분유떡이 돌보다 더 단단해서 먹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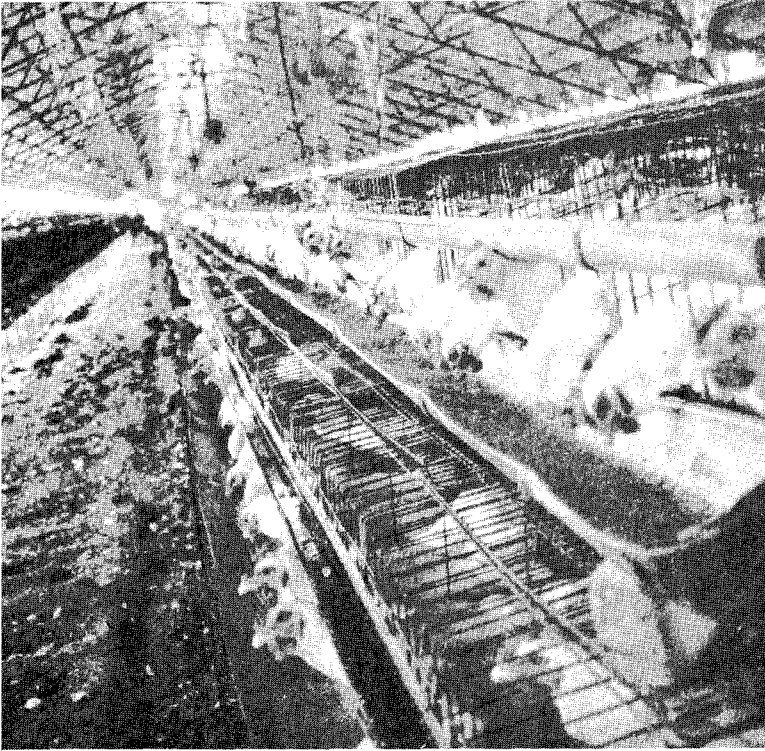
국민학교에 다니는 요즈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사실인지 진실인지 의심스럽게만 들리는 이야기일 것이다. 종종 각 가정에서 부모가 옛날에는 우유는 구경도, 먹어보지도 못한 귀한 음식인데 우유를 잘먹지 않아 버리는 경우 아이를 꾸중할 때 옛날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은 "요즈음 우유 앓먹는 애들이 어디 있느냐"고 답변하는데 아이들 이야기는 우리부모만 나에게 우유를 사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우유가 뭐그리 대단한 것이냐? 보편화된 우유를 마치 특별 음식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사는 집이건 못사는 집이건

우유 못먹이는 집이 어디 있느냐? 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리라...

우유도 제대로 못먹던 시절의 이야기가 몇년전의 일인가. 아마도 20년 전후 이야기일 것이다. 20년동안 무척이나 많이 변했다.

20년동안 사료업계도 무척이나 변했다. 방아간 시절, 주먹구구식 배합비 작성은 물론 경리담당 또는 총무담당자가 배합비를 작성한 공장의 산증인이 현재 생존해 있으며, 회사의 증역으로 개국공신을 자처하며 큰소리 치면서 후배들에게 옛날 이야기나 하는 공장이 현재도 꽤나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사람이 많은 공장일수록



〈최근 주요원료 구매결과〉

단위 : C&F\$/MT

구매일	품명	원산지	구매자	공급자	수량	단가	선적	비고
4.	옥수수	중공	개별	쌍용	7,000	106 <sup>40</sup>	8.1~8.25	파쇄
5.	〃	〃	〃	두산	10,000	106 <sup>40</sup>	BY 7,8월	〃
4. 4	〃	〃	〃	쌍용	12,000	105 <sup>50</sup>	BY 9,10월	〃
5.10	〃	미국	축협	효성	50,000	112 <sup>55</sup>	7.31~8.20	PNW
	〃	중공	〃	현대	10,000	102 <sup>90</sup>	BY 8월	파쇄
	〃	〃	〃	〃	10,000	102 <sup>90</sup>	〃	〃
	〃	〃	〃	〃	10,000	102 <sup>90</sup>	BY 9월	〃
	〃	〃	〃	〃	10,000	102 <sup>90</sup>	〃	〃
	〃	〃	〃	〃	10,000	102 <sup>90</sup>	〃	〃
5.17	〃	미국	개별	미쓰이	50,000	113 <sup>59</sup>	9.1~9.30	Gulf
4.	대두박	중공	사협	선화	10,000	223 <sup>45</sup>	BY 5월	추출
5.14	〃	〃	〃	현대	10,000	227 <sup>98</sup>	5.25~6.13	〃
5. 4	채종박	중공	개별	카길	5,000	113 <sup>75</sup>	BY 9월	추출
5.10	〃	〃	사구회	현대	7,000	114 <sup>90</sup>	8.5~9.15	〃
5.10	면실박	중공	개별	쌍용	4,350	124 <sup>55</sup>	BY 6월	추출
5.10	해바라기박	중공	사구회	현대	1,000	122 <sup>90</sup>	8.5~8.15	추출
5.10	당밀	호주	개별	선경	5,000	75 <sup>91</sup>	BY 5월	

경쟁에 뒤져, 이제는 사세가 약화되어, 정부의 제도 탓만 뒷전에서 하고 있는 듯 하다.

현재와 같이 각종 도입원료 구매의 특전과 생산의 독점을 보장하는 배합사료공장 허가제도하에서도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했다면 자유경쟁 시대에 돌입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왕년의 그 사람도 이제는 나이도 들고, 정년 퇴직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아, 퇴직금이나 챙기고 떠나면 그 만이지만 청운의 뜻을 품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한 후배는 무슨 희망을 갖고 그 회사에 열과 성을 다 바쳐야 하며, 회사는 그 청년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세상은 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배합사료 제조업 허가제도인가? 이제는 생각하고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양축농가를 위해서? 배합사료공장 경영주를 위해서? 배합사료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서? 배합사료 유통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허가제도는 영원히 존속해야만 하는가.

배합사료공장 허가제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산자측인 배합사료공장측인가? 아니면 소비자인 양축농가측인가?

세상은 많이 변하고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국내축산업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리게 한다는 소고기 수입도 하는 마당에 이제는 배합사료업계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 해야만 하는 시점이 아닌지... **양기**